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목 차

■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세계 1인당 GNI 현황 및 한국 1인당 GNI 전망	2
3.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 비교	4
4.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 비교	14
5. 시사점	17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02-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정 민 연 구 위 원 외 (02-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 개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2018년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1년으로, 일본(4년), 스웨덴(4년), 독일(6년) 등에 비하여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진입 시점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해보고,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와 미달성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세계 1인당 GNI 현황 및 한국 1인당 GNI 전망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27,600달러로 세계 31위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37,254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27년, 2.5%일 경우 2024년, 3%일 경우 2023년, 3.5%일 경우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 비교

2016년 이전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총 26개국이며, 이 중 14개국이 유럽, 2개국이 북미, 6개국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위치하여 유럽국가의 비중이 높다.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이 3만 달러 진입 후 4만 달러 달성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4.32년이며,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로 한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4.9년이 소요되었다.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과 미달성한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거시경제지표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영국은 3만 달러 진입이후 평균 3%대, 캐나다와 스웨덴은 2%대의 양호한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4만 달러 진입에 실패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0.0%, -0.2%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또한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양호한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4만 달러 진입 미달성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저조했다. 한편 노동시장 측면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3만 달러 달성 이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으나, 미달성 국가들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경제구조)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분이 함께 성장한 반면 미달성 국가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내수부문의 성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또한 제조업/서비스업 측면에서도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균형 있게 성

장한 반면 미달성 국가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이 모두 부진했다.

(인구구조)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또한 4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들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낮은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에서 활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수지 및 FDI)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4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활발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낮았다.

(재정건전성)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달성 국가들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4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모두 3만 달러 달성 이후 현재까지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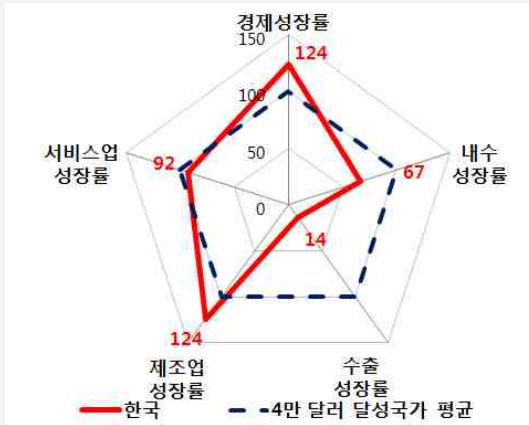
(과학 및 기술 경쟁력)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성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3만 달러 달성 이후 4만 달러까지의 도달한 기간 동안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기술무역수지비도 평균적으로 미도달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이 우수한 국가들이 4만 달러를 달성했다.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및 비즈니스 효율성이 미도달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 투명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사회 갈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다.

■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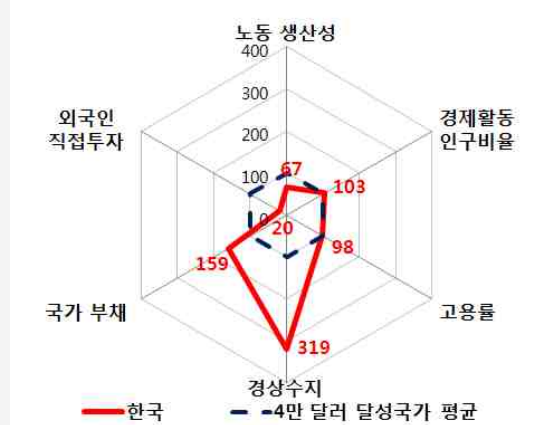
(한국지표와 비교) 한국이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 도달 후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외수 균형 성장, 서비스업 발전, 노동 생산성 개선, 고용률 제고, 과학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사회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은 4만 달러 성공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으나 내·외수, 서비스업 성장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R&D 투자 수준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높으나 과학·기술 인프라, 기술 무역 수준은 낮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국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사회적 인프라 및 자본이 부족하여 선진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 한국과 4만 달성국가의 경제 성장 지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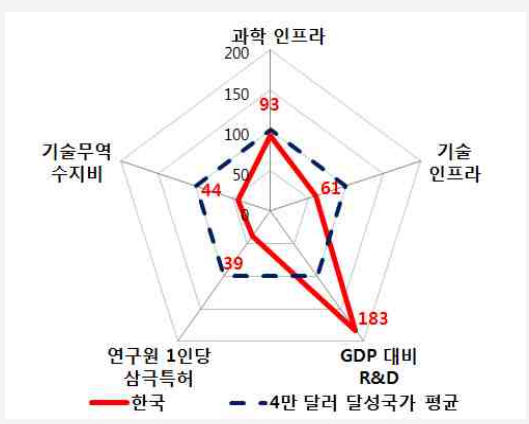
자료 : IMF, UN.

< 한국과 4만 달성국가의 기타 경제 지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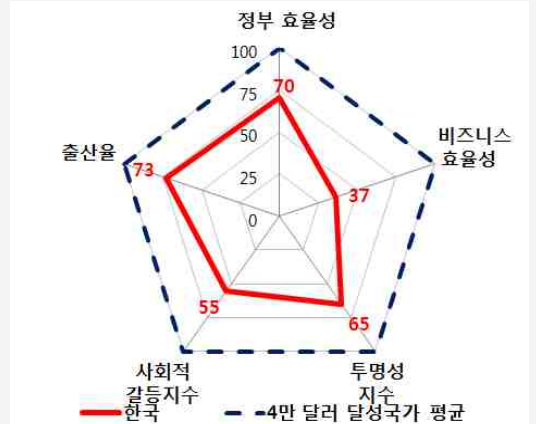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OECD, UN.

< 한국과 4만 달성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



자료 : IMD, OECD.

< 한국과 4만 달성국가의 사회적 인프라 및 자본 비교 >



자료 : IMD, 국제투명성 기구, UN,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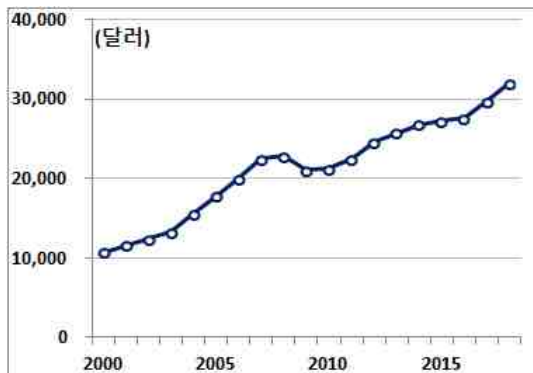
■ 시사점

한국 경제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점점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대내외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내수와 외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재확립하고 노령인구, 외국 노동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R&D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주체 간 신뢰 개선, 지하경제, 부정부패 방지 등의 노력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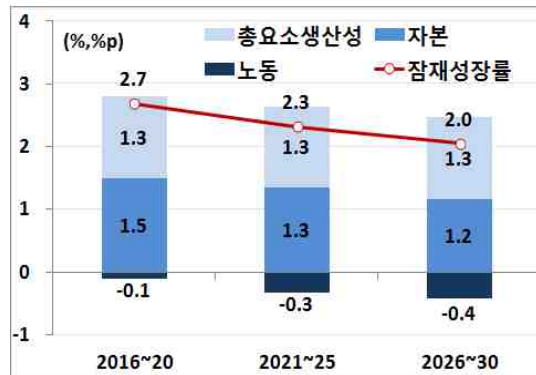
- 한국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3만 달러 정체 가능성도 상존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은 2018년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
 - 기획재정부 전망치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1년으로, 일본(4년), 스웨덴(4년), 노르웨이(5년), 독일(6년), 덴마크(6년) 등에 비하여 3만 달러 진입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4만 달러 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7%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후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
- 본 보고서에서는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의 사례를 통해 4만 달러 달성 조건을 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 1인당 GNI 추이 >



자료 : World bank, 기획재정부.
주 : 2017년 이후는 기획재정부 전망치.

< 잠재성장률과 요소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2. 세계 1인당 GNI 현황 및 한국 1인당 GNI 전망

1) 세계 1인당 GNI 순위

○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27,600달러로 세계 31위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37,254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¹⁾

-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27,600달러로 세계 31위 수준

· OECD 국가의 1인당 GNI 평균은 37,254달러로 한국에 비해 높음

< 2016년 기준 1인당 GNI 및 순위 >

(단위: 달러)

순위	국가명	1인당 GNI	순위	국가명	1인당 GNI
1	모나코	186,080	18	독일	43,850
2	리히텐슈타인	116,300	19	캐나다	43,660
3	노르웨이	82,440	20	홍콩	43,240
4	스위스	81,240	21	영국	42,330
5	카타르	75,660	22	벨기에	41,820
6	룩셈부르크	71,470	23	아랍에미리트	40,480
7	마카오	64,580	24	뉴질랜드	38,750
8	덴마크	56,990	25	프랑스	38,720
8	아이슬란드	56,990	26	일본	37,930
10	미국	56,810		OECD	37,254
11	스웨덴	54,590	27	이스라엘	36,240
12	호주	54,420	28	쿠웨이트	34,890
13	싱가포르	51,880	29	브루나이	32,860
14	아일랜드	51,760	30	이탈리아	31,730
15	네덜란드	46,640	31	한국	27,600
16	오스트리아	45,790	31	스페인	27,600
17	핀란드	45,050			

자료 : World bank.

주 : 모나코 2008년, 리히텐슈타인 2009년, 카타르, 마카오는 2015년 기준.

1) 1인당 GNI 자료는 Worldbank의 GNI per capita, Atlas method (current US\$)를 이용하였으며, 맨아일랜드, 버뮤다, 지브롤터, 케이맨, 채널, 페로 등 도시 국가 및 자치령 등은 제외한 순위로 Worldbank에서 발표하는 1인당 GNI 순위와는 차이가 있으며, Worldbank가 발표하는 순위는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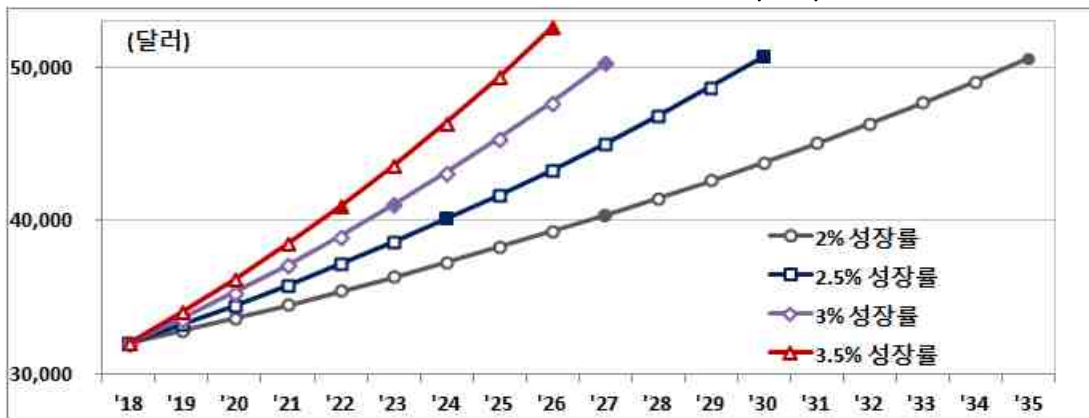
2) 한국의 1인당 GNI 전망2)

○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27년, 2.5%일 경우 2024년, 3%일 경우 2023년, 3.5%일 경우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이후 4만 달러 달성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9년, 2.5%일 경우 6년, 3%일 경우 5년, 3.5%일 경우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2% 가정)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7년 4만 달러에, 2035년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2.5% 가정)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5%일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4년 4만 달러에, 2030년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3% 가정)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일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 4만 달러에, 2027년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3.5% 가정)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5%일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 4만 달러에, 2026년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1인당 국민소득(GNI)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2) 2018년 1인당 GNI 32,000달러¹⁾ 달성 이후 경제성장률이 2%, 2.5%, 3%, 3.5%인 경우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및 5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소요 기간을 추정. 경제성장률 2.5%를 기준 시나리오로 하며, 1인당 GNI 전망 계산에 이용되는 경제성장률, 디플레이터 증가율,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원/달러 환율은 2010년 이후 평균값을 기본값으로 이용하였음.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을 경우 디플레이터 증가율도 낮아지고 환율이 절하되며,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높을 경우 디플레이터 증가율도 높아지고 환율도 절상된다고 가정함.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2015),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경제주평, 15-01호를 참고.

3.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 비교

1) 4만 달러 진입 국가 현황

○ 2016년 이전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총 26개국이며,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달성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4.32년

- 2016년까지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 스위스 등 26개국이며, 유럽 국가의 비중이 높음³⁾

· 26개국 중 14개국이 유럽, 2개국이 북미, 6개국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위치하여 유럽국가의 비중이 높음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이 3만 달러 진입 후 4만 달러 달성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4.32년이며,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로 한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4.9년이 소요

· 3만 달러 진입 이후 평균 기간보다 빠르게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마카오, 호주, 싱가포르 등임

· 한편 평균보다 늦은 국가는 노르웨이, 미국, 독일 등이었음

· 미국, 스웨덴 등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들의 경우 평균 4.9년이 소요됨

· 다만 일본의 경우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이후 국민소득이 5만 달러 가까이 근접하였다가, 최근 4만 달러 이하로 하락

○ 이후 분석에서는 도시 국가 및 자치령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과 자원 수출국은 제외

-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조건 분석에 있어 중동 국가 및 인구 규모가 작은 국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중동국가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이며, 인구규모가 작은 국가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임

3) 맨아일랜드, 버뮤다, 지브롤터, 케이맨, 채널, 페로 등 도시 국가 및 자치령 등은 제외한 순위이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적인 순위는 별첨 참조.

< 4만 달러 도달 국가의 1인당 GNI 및 3만 달러, 4만 달러 진입 시기 >

국가명	1인당 GNI (2016년 기준, 달러)	3만달러 (최초진입)	4만달러 (최초진입)	3만→4만 소요 기간(년)
모나코	186,080	1977	1979	2
리히텐슈타인	116,300	1987	1988	1
노르웨이	82,440	1992	2003	11
스위스	81,240	1988	1992	4
카타르	75,660	2004	2006	2
룩셈부르크	71,470	1990	1993	3
마카오	64,580	2007	2010	3
덴마크	56,990	1994	2004	10
아이슬란드	56,990	1999	2004	5
미국	56,810	1996	2004	8
스웨덴	54,590	1992	2005	13
호주	54,420	2005	2008	3
싱가포르	51,880	2006	2010	4
아일랜드	51,760	2004	2005	1
네덜란드	46,640	2003	2005	2
오스트리아	45,790	2004	2006	2
핀란드	45,050	2004	2005	1
독일	43,850	1996	2007	11
캐나다	43,660	2005	2007	2
홍콩	43,240	2006	2014	8
영국	42,330	2003	2005	2
벨기에	41,820	2004	2006	2
아랍에미리트	40,480	2001	2007	6
뉴질랜드	38,750	2011	2014	3
프랑스	38,720	2004	2007	3
일본	37,930	1992	1995	3
쿠웨이트	34,890	2005	2006	1
브루나이	32,860	2007	2012	5

자료 : Worldbank.

- 주1) 모나코 2008년, 리히텐슈타인 2009년, 카타르, 마카오는 2015년 기준.
- 2) 음영 처리된 국가는 2017년 기준 인구 1천만 명 이상으로 이들 국가의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평균 도달시간은 4.9년임.

2) 4만 달러 진입 국가의 특징

① 거시경제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거시경제지표가 미흡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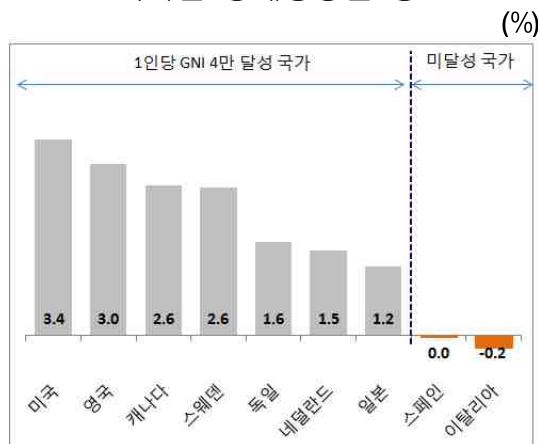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4만 달러 진입 미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저조

- 미국과 영국은 3만 달러 진입 이후 평균 3%대, 캐나다와 스웨덴은 2%대의 양호한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4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0.0%, -0.2%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임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양호한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4만 달러 진입 미달성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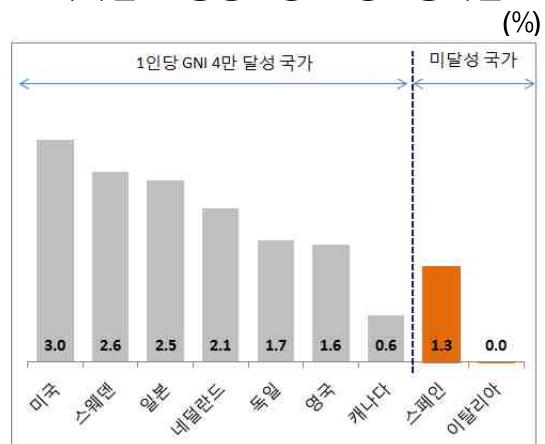
- 미국은 3만 달러 진입 이후 평균 3%대를 기록함
- 또한 캐나다를 제외한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등도 1% 중반에서 2% 중반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함
-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3%, 0.0%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 개선이 미흡함

< 국가별 경제성장률 평균 >



자료 : IMF.
주 : 3만~4만 달러 사이 단순평균.

< 국가별 노동생산성 연평균증가율 >



자료 : IMF.
주 : 3만~4만 달러 사이 연평균 증가율.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3만 달러 달성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으나, 미달성 국가들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고용시장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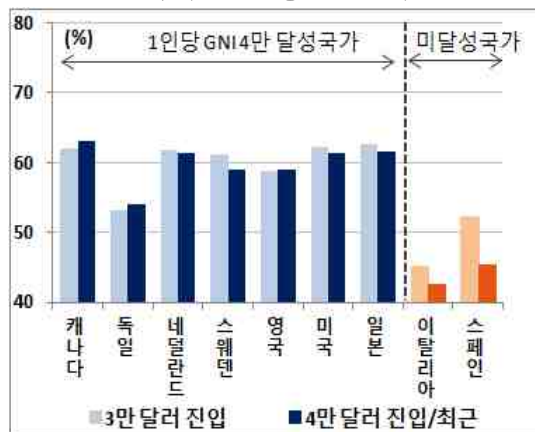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고용률이 60% 전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달성 국가들은 고용률이 하락

- 4만 달러 달성 국가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3만 달러 달성 이후 4만 달러 진입까지 고용률이 60%대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50%대 수준에서 고용률이 증가
-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의 경우 3만 달러 달성 이후 현재까지 고용률이 감소하여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모습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달성 국가들은 실업률이 증가하여 고용시장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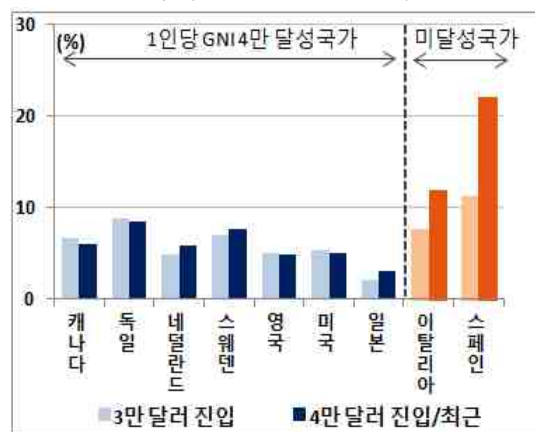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실업률이 10% 이하에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은 실업률이 감소
-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인 이탈리아의 경우 3만 달러 달성 이후 현재까지 실업률이 상승하여 10%를 넘어섰으며, 스페인의 경우 동기간 동안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임

< 국가별 고용률 변화 >



자료 : ILO.

< 국가별 실업률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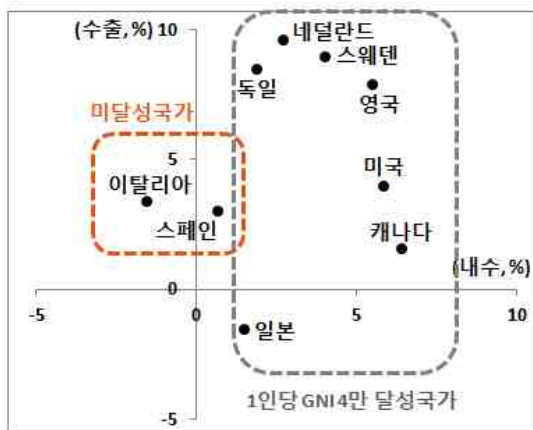
자료 : IMF.

② 경제구조

○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내수와 수출이, 산업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달성 국가 들은 전반적으로 성장이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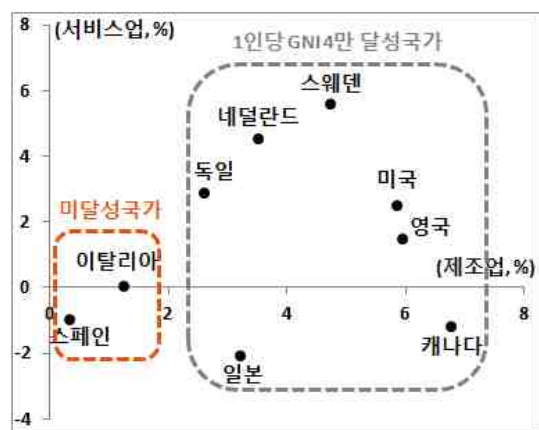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분이 함께 성장한 반면 미달성 국가의 경우 낮은 수준에 머무름
 - 4만 달러 달성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과 내수가 함께 증가 하였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임
 - 미달성 국가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수부문의 성장 침체가 두드러짐
-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균형 있게 성장한 반면 미달성 국가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이 모두 부진
 - 4만 달러 달성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의 경우 제조업 과 서비스업이 모두 플러스 성장, 일본, 캐나다의 경우 제조업 연평균 증가 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 미달성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내수 및 수출 연평균 증가율 >



자료 : UN.
 주 : 내수부문은 최종소비와 총투자의 합.

< 제조업 · 서비스업 연평균 증가율 >



자료 : UN.

③ 인구구조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인구구조 개선이 미흡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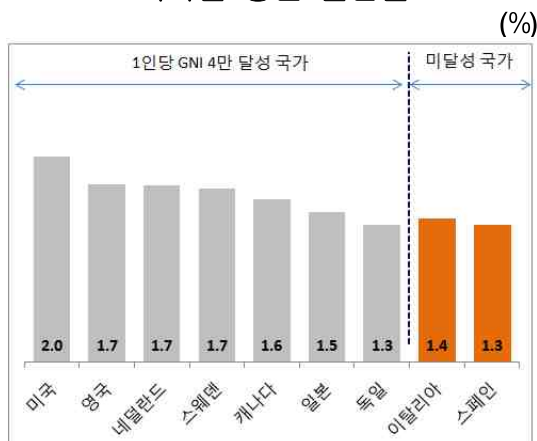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반면 4만 달러 진입 미달성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을 기록

-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의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5명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가임기여성 합계출산율은 각각 1.4명, 1.3명을 기록하여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낮은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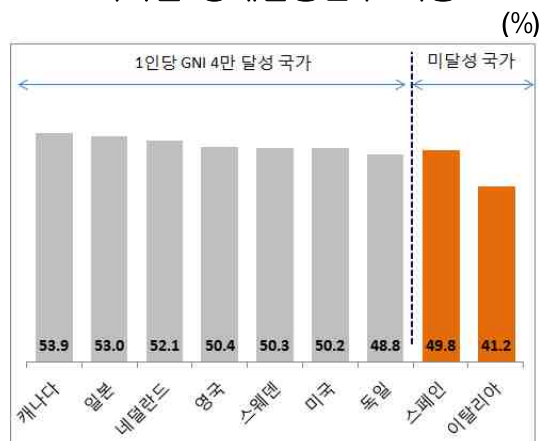
-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의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5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4만 달러 진입 미달성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각각 49.8%, 41.2%를 기록하여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별 평균 출산율 >



자료 : IMF.
주 : 3만~4만 달러 사이 단순평균.

<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



자료 : IMF.
주 : 3만~4만 달러 사이 단순평균.

④ 경상수지 및 FDI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상수지와 외국인 직접투자가 양호했던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미흡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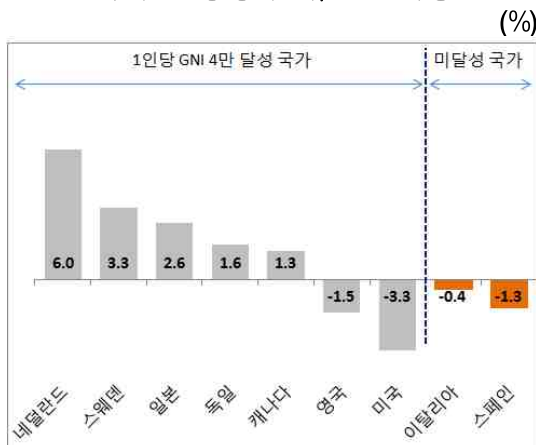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전형적인 수입국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 특히 네덜란드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평균이 6.0%를 기록함
-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평균은 각각 0.4%, 1.3% 적자를 기록하여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활발한 반면, 4만 달러 진입 미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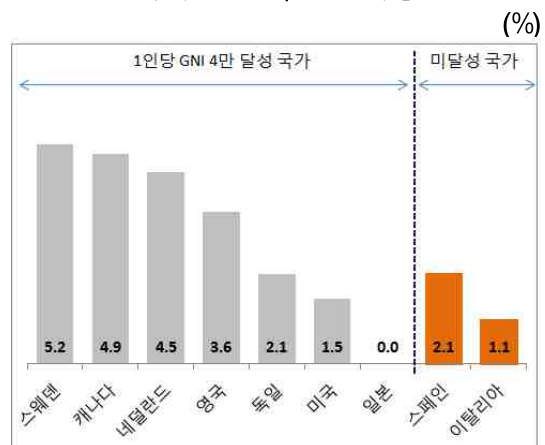
-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GDP 대비 FDI는 3%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FDI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GDP 대비 FDI 비중은 각각 2.1%, 1.1%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별 경상수지/GDP 비중 >



자료 : IMF.
주 : 3만~4만 달러 사이 단순평균.

< 국가별 FDI/GDP 비중 >



자료 : IMF.
주 : 3만~4만 달러 사이 단순평균.

⑤ 재정건전성

○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의 경우 대부분 국가부채가 양호한 수준인 반면 미달성 국가의 경우 국가부채가 증가하여 높은 수준이며 재정수지 또한 적자상태를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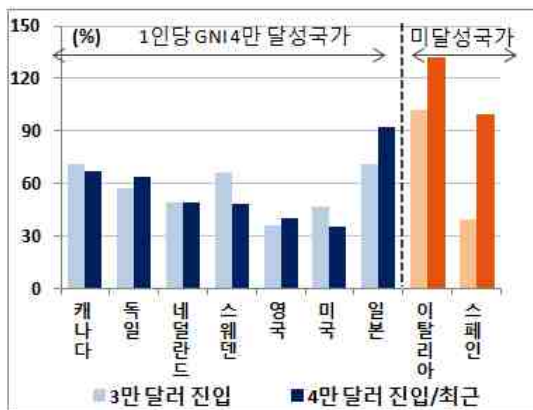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 나, 미달성 국가들은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부채가 높은 수준

- 4만 달러 달성 국가의 경우 3만 달러 도달 이후 4만 달러 진입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p 이상 증가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모두 3만 달러 달성 이후 현재까지 GDP대비 국가부 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재정수지가 개선된 국가와 악화된 국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미달성 국가들은 재정수지가 적자 상태에 머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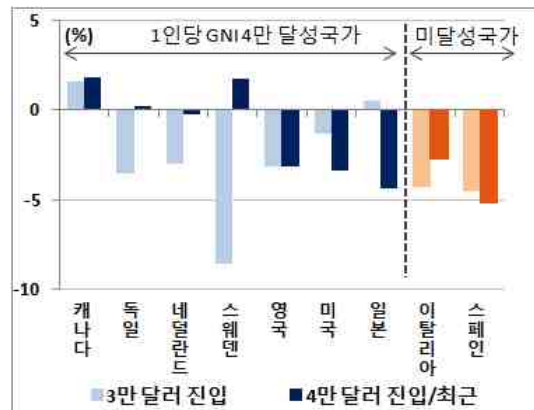
- 4만 달러 도달 국가 중 독일, 스웨덴의 경우 3만 달러 도달 이후 4만 달러 도달 기간 동안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네덜란드, 캐나다 역시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나, 미국, 일본의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
- 이탈리아의 경우 3만 달러 도달 이후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이며, 스페인의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

< 국가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



자료 : IMF, CBO.

< 국가별 GDP 대비 재정수지 변화 >



자료 : IMF, CBO.

주 : 스웨덴의 경우 1992년 자료 부재로 1993년 값으로 대신함.

⑥ 과학 및 기술 경쟁력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 수준은 미달성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성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대부분의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 중 대부분은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달성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
- 한편 미달성 국가들은 3만 달러 이후 순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음

-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달성까지의 기간 동안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기술무역수지비도 미도달 국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도달 기간 동안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5% 이상을 유지하며, 미도달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국가의 기술 경쟁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를 보면, 독일을 제외하고는 4만 달러 도달 시점까지 1배 이상을 기록하며 흑자 상태를 보임

<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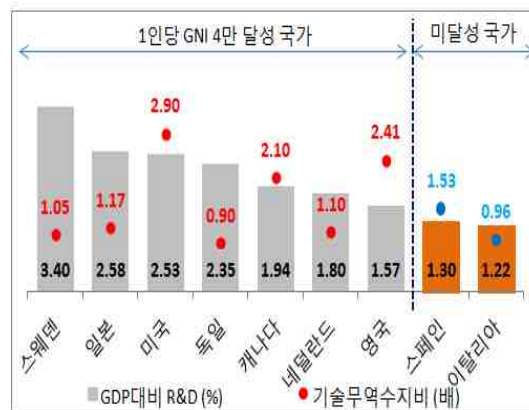
(단위: 순위)

국가	과학 인프라		기술 인프라	
	3만 달러	4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미국	2	1	1	1
스웨덴	5	4	4	13
캐나다	15	16	6	10
독일	3	3	13	8
영국	11	10	10	17
네덜란드	18	17	6	7
일본	-	1	-	16
이탈리아	29	22	28	37
스페인	34	26	37	28

자료 : IMD.

- 주1) 음영은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임.
- 주2)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3만 달러 시점과 4만 달러 시점을 비교, 한편 미달성 국가는 3만 달러 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

< GDP대비 연구개발비와 기술무역수지비 >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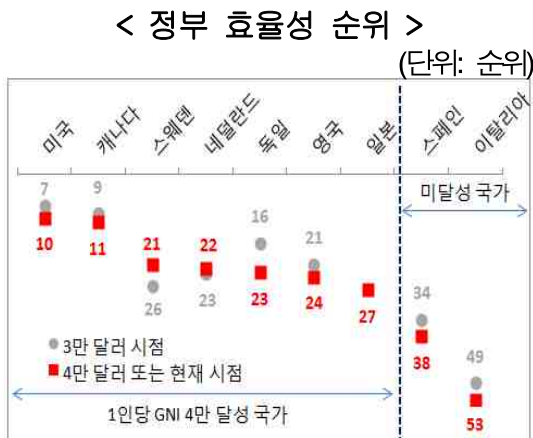
- 주 :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3만 달러 시점에서 4만 달러 도약 시점까지 기간 평균, 미달성 국가는 3만 달러 이후 2015년까지 평균치임.

⑦ 사회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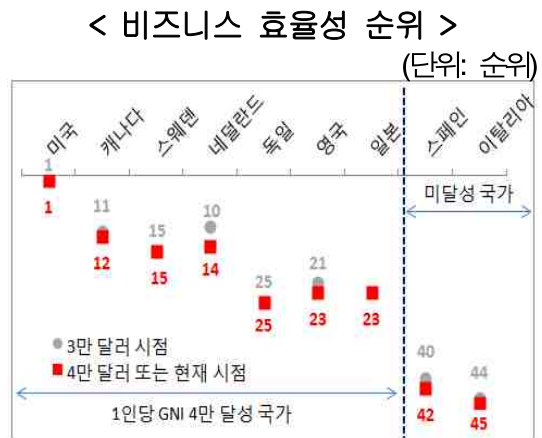
○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이 우수한 국가들이 4만 달러를 달성

-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및 비즈니스 효율성이 미도달 국가보다 높은 수준임

-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 효율성 순위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의 평균 순위는 미도달 국가보다 높은 수준임
- 또한 기업 환경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효율성은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은 20위권 초중반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40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음



자료 : 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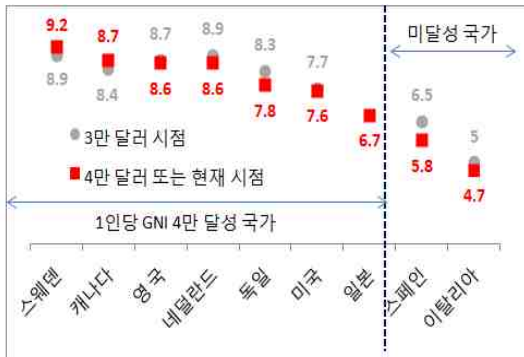


자료 : IMD.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미도달 국가에 비해 투명성 지수가 높고, 사회 갈등 지수는 낮아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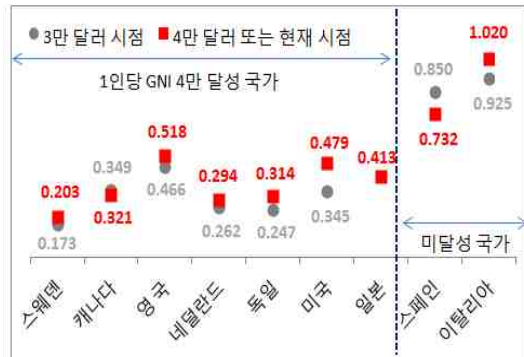
-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의 투명성 지수는 평균적으로 8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도달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4~5점대 수준에 불과
-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의 사회적 갈등 지수는 0.5점 대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미도달 국가들은 0.7~1.0점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 성장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

< 투명성 지수(TI) >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주 : 투명성지수는 2012년부터 100만점으로 변경되었으나 10만점으로 전환.

< 사회갈등 지수 >



자료 : World Bank, OECD, 현대경제연구원,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2016년 11월 11일.

4.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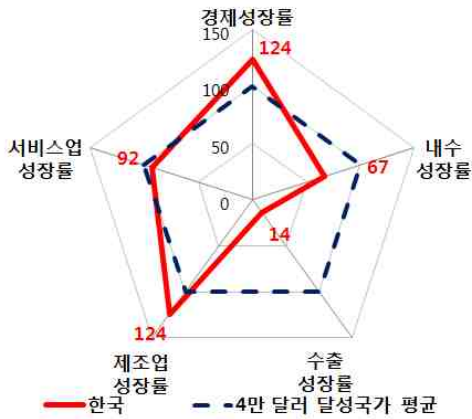
○ 한국이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 도달 후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외수 균형 성장, 서비스업 발전, 노동 생산성 개선, 고용률 제고, 과학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

-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은 4만 달러 성공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으나 내·외수, 서비스업 성장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의 평균을 100p으로 환산한 후 한국의 각 부문별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내수 및 수출증가율과 서비스 성장률이 각각 67p, 14p, 92p로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수준을 하회⁴⁾
 - 다만, 경제 성장률, 제조업 성장률은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
- 또한 한국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상수지, 국가부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4)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증가율을 고려할 때,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경우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달성 기간 동안 대부분 세계 경기 호황기이었던 반면 한국의 수출은 최근 세계 경기 악화로 인해 다소 침체되어 있었음을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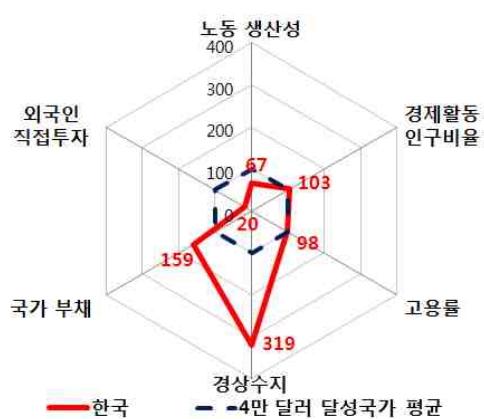
- 그러나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67p, 고용률은 98p로 4만 달러 도달 국가 수준(100p)에 못 미침

< 한국과 4만 달러 달성국의 경제 성장 지표 비교 >



자료 : IMF, UN.
 주1) 한국경제의 성장률 최근 5년 평균, 한국의 내수, 수출, 서비스업, 제조업은 최근 5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임.
 주2)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3만~4만 달러 기간의 평균 및 연평균 증가율임.

< 한국과 4만 달러 달성국의 기타 경제 지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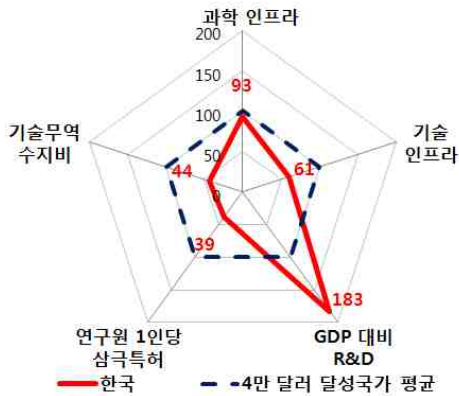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OECD, UN.
 주 : 한국 지표는 가장 최근 연도 지표이며, 달성 국가는 4만 달러 시점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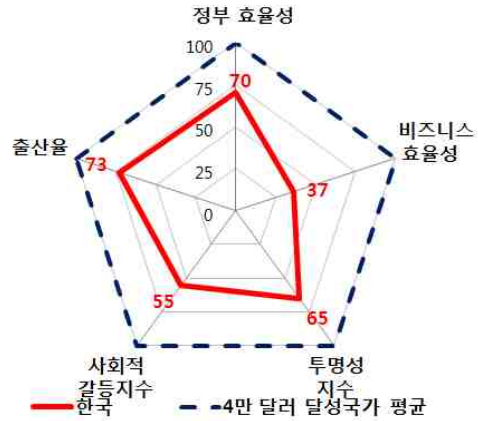
- 한국의 R&D 투자 수준은 4만 달러 달성 국가에 비해 높으나 과학·기술 인프라, 기술무역 수준은 낮음
 - 한국의 GDP 대비 R&D는 183p으로 4만 달러 도달 국가 100p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과학 및 기술 인프라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의 높은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1인당 삼극특허, 기술무역수지비 등 결과물로 나타는 지표들이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에 비해 낮음
- 한국은 4만 달러 달성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사회적 인프라 및 자본이 부족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
 - 한국의 정부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성이 각각 70p, 37p으로 4만 달러 달성 국가에 비해 낮음
 -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한국에 비해 투명성이 높고 사회적 갈등 수준이 낮음

- 또한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 수준이 높아 고령화 속도를 낮추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한국의 출산율은 낮은 수준

< 한국과 4만 달성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



< 한국과 4만 달성국가의 사회적 인프라 및 자본 비교 >



자료 : IMD, OECD.

- 주1) 한국경제의 성장을 최근 5년 평균, 한국의 내수, 수출, 서비스업, 제조업은 최근 5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임.
- 2)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3만~4만 달러 기간의 평균 및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IMD, 국제투명성 기구, UN, 현대경제연구원.

- 주 : 한국 지표는 가장 최근 연도 지표이며, 달성 국가는 4만 달러 시저점 지표임.

5. 시사점

○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내수와 외수의
고른 성장, 과학기술과 사회적 자본의 양호한 발전 등의 특징을 보임

- 한국의 경우 안정적인 거시경제, 연구개발 투자 부문에서 4만 달러 달성 국가
들과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
- 다만, 내수와 외수의 불균형, 과학기술 투자의 낮은 성과, 부족한 사회적 자
본,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

첫째, 점점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대내외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
는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성
장동력 마련,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위한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
- 대외적인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
지하고, 가계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
· 특히 국내 내수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효과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둘째, 내수와 외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경제 성장
의 선순환 고리를 확립해야 한다.

- 국내 경제는 주로 외수와 제조업에 치우친 성장을 한 반면, 4만 달러 달성 국
가들은 내수와 외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
- 국내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외수와 제조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내수와
서비스업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
·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이 서비스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함

-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에 노력해야 함

셋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재확립하고 노령인구, 외국 노동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재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출산율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임신 전후, 양육, 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령인구에 대하여 취업교육 및 알선, 직무 발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적정 수준의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 노령인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무를 발굴하고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도 필요함
 - 외국인 인력의 활용도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넷째, R&D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국내 R&D 투자 대비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 연구 인력의 활용도 제고, 공공 R&D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등에 주력
- 특히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R&D 투자의 대내외적인 개방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국내 R&D의 주요 주체인 산·학·연 간 공동연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R&D의 자율적 융합이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의 연구기관, 대학, 혹은 연구자와의 협동 연구를 통해 연구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등을 확대해야 함

다섯째, 경제주체 간 신뢰 개선, 지하경제, 부정부패 방지 등의 노력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선 경제주체 간의 신뢰 수준 향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 개선이 필요
 - 개인 간 신뢰, 국민과 기업 간 신뢰는 물론이고 행정부, 사법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뢰가 모두 개선되어야 함
- 지하경제 형성, 부정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단호한 처벌이 중요
 - 또한 초등교육부터 지하경제,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회의식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함 **HRI**

정민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백다미연구위원 (2072-6239, dm100@hri.co.kr)
오준범선임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김수형연구위원 (2072-6217, soohyung@hri.co.kr)
신유란연구위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별첨 ①> World Bank 공식 1인당 GNI 순위

- World Bank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1인당 GNI 순위는 2016년 기준 45위(Atlas Method 기준)

< World Bank 발표 1인당 국민소득(GNI) 순위 >

순위	국가명	1인당 GNI(USD)
1	Monaco	..
2	Liechtenstein	..
3	Channel Islands	..
4	Bermuda	..
5	Isle of Man	82,650
6	Norway	82,440
7	Switzerland	81,240
8	Gibraltar	..
9	Luxembourg	71,470
10	Macao SAR, China	64,580
11	Qatar	75,660
12	Denmark	56,990
12	Iceland	56,990
14	United States	56,810
15	Cayman Islands	..
16	Sweden	54,590
17	Australia	54,420
18	Singapore	51,880
19	Ireland	51,760
20	Faroe Islands	..
21	Netherlands	46,640
22	Austria	45,790
23	Finland	45,050
24	Germany	43,850
25	Canada	43,660
26	Hong Kong SAR, China	43,240
27	United Kingdom	42,330
28	Belgium	41,820
29	United Arab Emirates	40,480
32	New Zealand	38,750
33	France	38,720
34	Japan	37,930
36	Israel	36,240
37	Kuwait	34,890
41	Brunei Darussalam	32,860
42	Italy	31,730
45	Korea, Rep.	27,600

자료 :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Monaco, Liechtenstein, Channel Islands, Bermuda, Isle of Man, Gibraltar, Macao, Cayman Islands, Faroe Islands는 2016년 데이터 부재로 World Bank 추정 순위.

<별첨 ②> 1인당 GNI의 결정요인

- 전망의 전제조건

- 경제성장률(실질GDP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이 높아지고 환율도 절상되어 1인당 GNI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
- 경제 주변 여건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충격과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
- 전체 인구수는 통계청의 중위 기준 인구성장 시나리오를 가정

- (계산 방법)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연앙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됨

- 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은 우리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총소득을 의미함
- 명목 GNI = 명목 GDP(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⁵⁾
-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GNI를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함
- 또한 자국통화 기준의 1인당 GNI는 국제비교를 위해 대미 달러 연평균 환율로 표시하기도 함

- 1인당 GNI (달러화 표시) 는 직접적으로 명목GDP, 인구수,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환율에 의해 결정됨

- 1인당 GNI는 직접적으로 명목GNI, 인구수, 환율에 의해 계산

$$1인당GNI_t \text{ (달러화 표시)} = \frac{\text{명목}GNI_t}{\text{인구수}_t} \times \frac{1}{\text{원/달러환율}_t}$$

- 명목GNI는 명목GDP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 계산됨

$$1인당GNI_t \text{ (달러화 표시)}$$

$$= \frac{\text{명목GDP}_t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_t}{\text{인구수}_t} \times \frac{1}{\text{원/달러환율}_t}$$

- 또한 명목GDP는 실질GDP증가율(경제성장률)과 디플레이터증가율의 합수이기 때문에, 1인당 GNI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1인당GNI_t (달러화 표시)

$$= \frac{\text{명목GDP}_{t-1} \times (1 + \text{경제성장률}_t + \text{디플레이터증가율}_t)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_t}{\text{인구수}_t} \times \frac{1}{\text{원/달러환율}_t}$$

- 한편, 실질GDP증가율(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디플레이터증가율도 높아지고 환율도 절상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1인당 GNI는 결국 경제성장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5) 국외순수취요소소득(國外純收取要素所得, 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 국내인의 對 해외 생산요소 제공 대가 - 외국인 對 국내 생산요소 제공 대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명목 GDP와 명목 GNI의 차이가 됨.